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항상 봄처럼 여유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세요!

업과 습이 밝게 녹아지려면

문 메말랐던 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봄처럼 밝고 따뜻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쌓아 온 습이 순간순간 나올 때는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물러서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한 가지 경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습이 나오고, 몰랐던 새로운 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맡기고 되놓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봄 햇살에 어둡고 침울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듯 제 안의 업과 습이 밝게 녹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답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뵐 수 있으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습과 업이 많아서 녹이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을 그대로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끊어 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 들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또 나쁜 거를 불의에 당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 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할 일이 없고,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구,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맡겨도 되지 않는데…

문 스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만들어 낸 그 자리에 맡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맡겨도 일이 해결이 되질 않는 것인지요?

답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 "아, 주인공에다가 관했는데도 안됩니다. 잘되다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 없고요. 말도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만 고정되게 말을 하는 것도 없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되는 것만 되고 안되는 거는 없으리까. 왜냐하면 안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되는 거 안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죠.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나는 데에 지금 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이 없다면 자기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아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어서 또 딴 부처님을 찾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저지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지금 하고 가고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아마 훈계하실는지도 모르죠.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도리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행하고 과거로부터 행하고 왔던 거 지금도 행하고 가는 거,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지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발부리를 차여서 피가 나도 여러분이 각자 "아이고!" 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보현신이 돼서 자기를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 줄 리가 없죠. 딴 사람이 만져 주기는 할지언정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자체에서 아프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둬라. 너만이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 낸다면 감응이 되겠죠. 이것이 차차차차 감응이 돼서 커진다면 이게 바로 성품을 발견해 내는 도립니다.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觀)했는데도 왜 안되느냐?" 하시는데 하!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 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어도,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형상을 믿거나 딴 데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즉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감응도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에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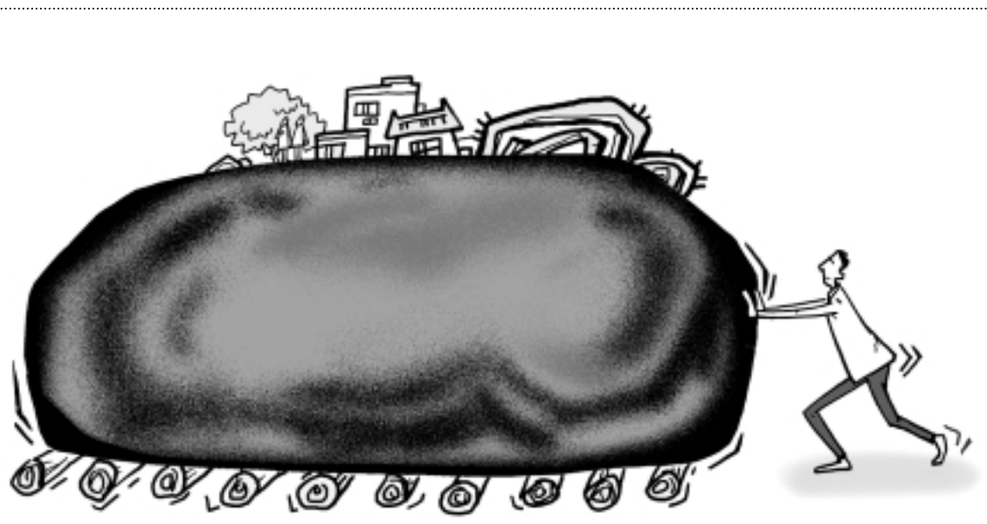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전수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년과정	2007년 3월~6월	★기초: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선원 천수경,도량석,종송 등 ★예불: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삼보통청(사시불공),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구병시식,장의편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07년7월 ~ 08년2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등게,삼귀의,합장게,고향게 개계,쇄수게,복청게,사방찬,도량게 참회게,헌좌게,욕건이,향수나열 운심게,가지게,인성이	전통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막바라요잡 도량게,다게 나비춤(착복) 태징타법
2학년과정	2008년 3월~12월	천도의식 상단권공 및 시식	법주:바라지,관욕,화의재 바라 신중단작법, 회심곡, 축원화청
	2009년 1월~2월	시연회 준비-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사물다루는법, 점안의식 특강 : 법고(북춤), 공덕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7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2년 총 8학기 학기당 300,000원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부설 범음범패교육원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시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29-21)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

가. 기초과정
● 송 주 : 도량석 ,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 사성례 , 칠정례 , 오분향례 ,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 각단불공

나. 전문과정
● 상주권공 : 시련,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104위) , 상단권공, 중단권공,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회향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전통의식타법)
※ 광쇠 ,호적
● 특 강 : 괘불이운,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재의식 등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7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범음범패) 회원모집

- 도량석 종성 향수해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신중청등 각단불공
- 관음시식 전시식 구병시식 화엄시식
- 상용영반 종사영반 봉송(경신 삼단도배)
- 정기법회 특별법회 가정법회 방생법회
- 상장례의식(시다림염불) 안택 고사
- 상주권공재 각배(약례)재 예수재 수륙재
- 화청 축원화청 회심곡 (서울경기 영남)
- 바라 작법(나비춤) (서울경기 영남)
- 신중작법 104위(팔공산) 39위(서울경기)
- 점안(불상 탱화 가사) 괘불(삼신)이운
- 주요의식과 경전의 우리말 진행 독송법

● 마음 맞는 도반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목탁과 요령의 행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 북 태징 등을 좀 쉽게 잘 배워 보십시오.
☞ 우선 목탁 요령 녹음기 들고 그냥 오십시오.
● 반드시 만족하실 것입니다!
● 상반기 마지막 광고입니다 메모 잘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 스님과 재가불자 회원을 항시 모집합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공부합니다.
☞ 경부선 영천 IC → 첫 번째 신호 좌회전 → 직진 막다른 길에서 좌회전 5분거리
慈 光 園 (동림한방병원 옛 초등학교)
☎054)336-4475~6 / 010)4579-0408
교육원장 혜명 지운 지도법사 석원범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원 합장